

부활 제5주일

기도서 298면(다해)

제1독서: 사도 14, 21b-27

제2독서: 묵시 21, 1-5a

복음: 요한 13, 31-33a, 34-35

숨정이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4, 34).

강론

소리

나의 남은? 어디?

이성우 신부 / 신풍천주교회

하느님은 푸른 하늘 저 편에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때론 내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양심 깊은 곳에나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글과 딱딱한 말같은 분이셨습니다. 기껏해야 그분은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은 나에게 멀리 있고 두려우며 어렵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과는 닮지 않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하느님은 나의 머리 속에 들어 앉아서 나를 딱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제의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하느님은 결코 나의 남은은 아니셨습니다.

나의 남은은 봄처녀들의 나물 바구니에 담긴 기쁨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입맞춤과 포옹을 거절치 않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만남을 기뻐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연주되는 모든 음악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신명난 사람들의 몸짓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하나되고 싶은 마음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모든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들의 커다란 가슴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내 손안에 있는 작은 빵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나를 울릴 수도 웃길 수도 있는 팡대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언제나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이십니다. 그렇긴 해도 남은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나의 남은은 영원한 현실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언제나 죽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터무니없이 모함을 받으시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반항하지 않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저주 한번 못하는 바보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어느 목사님」처럼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남은은 내가 '당신'이라고 느끼게 되는 모든 분이십니다.

남은 결코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남은은, 결코 저 먼나라에 계신 분은 정녕 아니십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묵시록 21,3).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한국 신체장애자 복지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적 장애자 3만2천여명, 정박아 4천여명, 농·맹아자 1만9천여명 등 모두 5만5천여명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는 공식발표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상당히 적은 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주위에서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복잡한 인파가 물린 관통로를 거닐어도 그들은 거의 없다. 그들도 결코 밝은 거리가 싫진 않을텐데... 이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게다. 안(內)과 밖(外)을 이어주고 막아주는 벽(울타리) 안은 나름대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지만, 폐쇄된 어둠의 공간이라면 벽을 허물고 밝은 세계로 나와야 한다.

4월20일은 「장애자의 날」이었다. 해마다 이날이면 벽 속에 갇힌 이들을 어거지행사에 동원했다. 올해도 예나 다름없이 가식적 행사 속에 하루가 지나갔다.

福祉社會는 물질만 풍요한 사회는 아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이다.

얼마전 세계적인 그룹사운드이자 재미동포들의 음악그룹 「코리아나」가 방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갔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공식 지정곡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그들은 이번 공연에도 그 곡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데 그들을 초청한 경비가 엄청나다는 데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렇다. 우리는 장애자 사이에 놓인 벽도 넘어서야 한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그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것 때문에 돈을 쓰고 마음을 모으는 사회, 그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사회인 것이다.

숨정이 산책



“성체 —공경의 대상만은 아니다”

제44차 성체대회를 맞이하여 각 본당, 단체별로 성체 조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체는 공경의 대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은 모셔 놓고 경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라고 주셨다. 그리하여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라고 하셨다.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것,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이웃을 이용하여 ‘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이웃의 ‘밥’이 되어 주라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44차 서울 성체대회는 그저 행사로 끝낼일이 결코 아니다. 성체를 모시고 거창한 행사를 치루기 보다는 ‘성체’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과 피까지 모조리 내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재산, 시간, 관심, 재능...등—가능한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교회는 “한마음 한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눔의 삶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본부에서는 그 운동의 실천방안으로 1)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2)입양 및 결연운동 3)헌미(헌금)운동을 제시한다. 기쁜마음으로 동참하자.

◆ 헌혈 결과

송천동 50명, 숲정이 34명, 복자 76명, 서학동 25명, 전동 48명, 평화동 33명, 효자동 72명, 팔마 56명, 신동 41명, 영등동 81명, 인보성체수녀원 29명, 글라라 수녀원 11명, 교구청 13명 총계569명



성서와 함께

44. 구약성서의 문학유형(E) : 역사

5. 역사(歷史)

구약성서의 대부분은 형식상 역사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다. 군주제도가 도입되면서 솔로몬 시대 때에 궁중의 서기관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조실록과 같은 성질의 문서라고 하겠다. 이 궁중실록에 대하여 열왕기 상권 12, 41(솔로몬의 행적)과, 같은 책 14, 19와 29(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가 증언하고 있다.

역사가 전설이나 그 외 다른 일화와 다른 점은 전자가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작가들에 의해 기록된 것에 반해 후자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 역시 전설처럼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기록이 전설보다 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따름이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은 “왕위계승 사회”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 후서 9-20장 및 1-2장의 기록이다. 이 문서의 저자는 필시 목격증인일 것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종교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요소에 집착되어 있었다. 즉 그는 서자로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계승을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전설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기록의

현실과 관련된 생생한 세부 묘사와 논리정연한 사건 전개, 독립된 사건들을 한 점으로 모으는 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성서의 독자들은 위의 궁중실록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적 기록들과 마주치게 된다.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들이 그것이다. 이 책들의 저자들은 물론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들이 실제로 완성되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모세의 죽음 이후부터 기원 전 586년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기 까지 이 역사서들은 서서히 완성되어 갔던 것이다.

성서에서 역사가 지니는 의미는 일반상식에서 이해하는 역사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의 전달이다. 그러나 성서의 역사는 하느님의 위업과 그분께 선택된 인물들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이 약화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삽입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성서의 역사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신경성, 만성병, 마비, 신경통
척추디스크등 질환으로 고생
하시는 교우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송 베드로

☎ 87-3067

신뢰속에 밝은 미래를
약속드리는 현대!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 (요셉)

전주우체국 후문 앞

☎ 83-8844-84-3744

출산준비물에서
이동복까지



최낙영 (해지노) 안정희 (루피나)

(주) 모아방호남영업소 ☎ 4-7741 (금암종합상가 2층)

직원 모집

자격 : 고졸이상 학력

男 : 25-30세 (운전면허소지)

女 : 용모단정, 활동력있는 자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잡 관 /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가?”

(평협회장 안득수)

전주교구하면 순교선열들의 신앙을 이어온 방인지교회구를 자랑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마친 현시점에서 우리교구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존재는 무엇일까 하고 서로 생각하여 봅시다.

주교님이실까? 교구청일까? 평신도 단체일까? 숲정이 치명탑일까? 이루어질다와 유요한의 치명자산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들이 전주교구의 상징적 존재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적어도 상징적 존재라면 그것 하나만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도 그 안에 우리교구가 걸어온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로해서 본당건립 100년이며, 성전건축의 70여년을 맞고 있고 그 건축지가 윤지충, 유헌검, 권상연 등 치명자들의 치명터이며 이곳으로 부터 수많은 본당이 갈려 나왔고 사제들이 배출되었으며 6·25의 전마 속에서도 이 교회의 맥을 지켜왔고 이 성전 안에서 100여년간 전주교구의 중요한 일들이 거의 이루어진 “전동성당”이 이 교구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성전은 100여년이 흘러내려오는 동안 한번의 손길도 닿지 않고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한 성전, 벽 굵으면 부술부술 벽돌이 삭아서 떨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터 떨어진 교구의 상징적 實存이 되고 말았다.

자!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그 후에라고 자랑하고 있는 치명자들의 치명터에 이 훌륭한 건물을 멋지게 보수하여 빛나고 장중한 그 외모와 찬란한 내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브로 치명자들의 후예답게 모든 외국인 후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 주도록 하자.

지난 주일 전주 고산성당에서는 전동성당 복원을 위해서 2차헌금을 하였는데 일차헌금액인 20만여원보다 더 많은 22萬여원을 각출해서 보내왔다.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 전동은 700여 세대중에서 아직 100세대도 다 신청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가난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일까? 현실의 재물과 영예를 많이 가진 형제들일까? 우리 한 번 반성해 보면서 사제와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구의 상징적인 성전, 전동성당을 하루 빨리 복원해야 겠다.

교 구 소 식

● 시복시성 가정 봉헌서 수집 방법 ●

사순절 동안 많은 회생과 절약과 기도를 바쳤으리라 믿습니다. 가정 봉헌서에 기록하여 반 회장, 단체장 혹은 개별적으로 모아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1. 봉헌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2. 봉헌 가정에 5인 시복 시성 약전과 교황께 드린 청원문서를 영수증과 함께 보내 드립니다.
3. 청원서가 없는 가정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십시오.
4. 치명자산 개발 공사는 현재 평판작업을 마쳤습니다.

1. 교구혼인강좌 : 4월30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2. 한마음 한몸 운동 헌혈 : 4월23일 동산, 인후동, 30일 중앙 삼례
3. 꾸르실료운동 도입 20주년 전주교구 울드레야 : 5월12일(금) 10시-17시
장소- 전주해성학교 강당
4. 재속프란치스코 전주지역 1일피정 : 5월12일 오전9시-오후5시 장소-복자성당
회비-1인당 1,000원 지참물-미사도구, 지참서
5.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4월28일 금요일 밤11시 전동성당 소강당
초청강사-강덕행신부님
6. 성령세미나 : 아일린 조지 여사의 성령세미나 89년 5월 14일(일) 오후2시 덕진 실내체육관 회비1,000원

요십이 (820) 김병오



특별초청

아일린 조지 여사의
치유의 기도

일시 : 5월 14일
오후2~7시까지

장소 : 실내체육관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한방보약 · 예방의약
용(元茸) 九蒸九晒 인삼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우진 (이시익) 황신숙 (리브기)

전주시 완산교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성심칼라현상소

25분 완성
최신기계선로 정밀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주산 (오환)
시정열(전북은행노동동지침 앞)
☎ 86-9008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문대·제구장
간이지·탁상·화분대
흔레용가구 및출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안 나 (은순)
전주 ☎ 77-1747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박 종 탁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 석 재
 사무실 71-4171

1. 예비자 새 영세자(89년부활) 성지순례(4.26일 슬미) : 오늘까지 신청 하세요.
 2. 주일학교 야유회 : 4월30일 전주동물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성소주일 때와같이 미사후에 유행 합니다.
 3. 성소주일 행사에 후원해 주신 부모님과 수녀님께(유료수) 감사드립니다.
 4.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보나 수녀님 영명축일(4/24)이 클란디나 수녀님 종신허원식(5/13)
 5. 성체강복 : 매월 첫목요일 미사후
 6. 부활 영세자 첫고백 : 4월27일 오후4시~8시
 7. 예비자 교리안내 : 주일 미사후(보나수녀님) 수요일 미사후(신부님)
- ☐지난주봉헌금 : 202,680원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 천 봉
 수녀원 사무실 53-5277

1. 꾸리아 : 공식미사후
 2. 사목회 : 25일 저녁미사후
 3. 구역장모임 : 목요일 어머니 미사후
 4. 야외미사 : 4월30일 공식미사가 야외미사로 합니다. 장소-성당 뒷산 장대산 담작골 *어린이 미사 없습니다.(4월30일)
 5. 축성모회 재발족 : 회장-황옥주 부회장-김영자 총무-박기전 회계-송옥비 자매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6. 금주전례 : 독서①방관수 ②최원희
 봉헌-유춘근 박춘옥 부부
 7. 차주전례 : 독서①인은성 ②배순희
 봉헌-원상희 김숙경 부부
- ☐지난주봉헌금 : 181,660원 ☐교무금 : 67,000원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 덕 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 상 용
 수녀원 53-7157

- ※ 본당 신부님 피정 : 5월1일부터~6일까지 피정 기간동안 교형·자매님들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피정기간 동안 미사 없습니다.)
 ※ 본당의 날 : 오늘은 본당이 축성된 날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느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11,1~10 루가17,1~37
 2. 불우이웃돕기 폐품수집 :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성서연구 : 구약판-토요일 미사후 있습니다.
 4. 성전가꾸기 : 잔디와 꽃나무 관심 바랍니다.
 5. 금주전례 : 해설-유정선 독서-소제덕 부부
 봉헌-서수장 부부
 6. 성당안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로 미사에 참여 합니다.
 7. 한미음 한몸 운동 :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시다.
- ☐지난주봉헌금 : 146,000원 ☐교무금 : 110,000원
 ☐감사헌금 : 김양례 자매 감사합니다.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 태 현
 사무실 사목회장 박 종 철

1. 유아세례 : 매월 첫주일 있습니다.
 2. 사제양성 돼지저금통 : 다음주일까지 빠짐없이 봉헌합니다.
 3. 예수승천 야외미사 : 5월7일 11시미사 장소-미정
 4. 수녀원 및 교육관 신축헌금 : 교동-신용관10만원 중신-석인순 5만원 임순애1만원 송산-박성동5만원 범성-홍용애3만원 정의의 거울 레지오1만원 감사합니다. 소계250,000원 누계16,915,000원
 5. 주일학교 소품 : 오늘 오전9시 장소-나바위천주교회
 6. 축! 결혼 : 신랑-박종환(미카엘)군 신부-전명숙(세레나)양
 오늘12시 장소-용안천주교회
 7. 금주전례 : 해설-양종규 독서①남용규 ②박영찬
 봉헌-유용환 부부
 차주전례 : 해설-정대홍 독서①김양수 ②이정자
 봉헌-정영옥 부부
- ☐지난주봉헌금 : 171,640원

*나바위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범 석 규
 사무실 사목회장 김 상 규

1. 성모성심회 : 공식미사후 회합실에서
 2. 특별강론 : 목요일 저녁미사중에 있습니다.
 3. 성 김대건배 학생배구대회 : 다음주일
 4. 오늘은 어린이 미사 없습니다.
 5. 성당소수비 봉헌 : 7구역 하상월 일백만원 감사드립니다.
 6. 반도임간부교육 : 28일(금) 저녁미사후에
 7. 금주전례 : 첫미사-박종철부부 공식미사-학생회
 차주전례 : 첫미사-서백원부부 공식미사-전병철부부
- ☐지난주봉헌금 : 232,630원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양 재 철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박 창 중
 수녀원 6-1539

1. 회의 : 공식미사후-꾸리아
2. 본당신부님 미국방문 : 5월1일~25일
 방문기간중 김종일, 신부님께서 토·일요일 수고해 주십니다.
 평일은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가 있습니다.
3. 매월 넷째주일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 : 매달 교무금을 봉헌 합니다.
4. 베델성서연구 : 4월27일(목) 7시30분
5. L.M에 가입하여 복음 전파에 노력합니다.
6. 사무장휴일 : 매주 수요일
7. 특별헌금 : 익명성 100만원
8. 감사헌금 : 소인마누엘 -2만원
9. 금주미사안내 : 천사의 모후Pr.
 다음주미사안내 : 순결하신 어머니Pr.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 울 수
 수녀원 9-3196

1. 한미음 한몸 정신으로 사랑을 함께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현행 행사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구역분과 회의 : 밤8시 잊지 맙시다.
 3. 중·고 전체교리 : 오후2시~2시30분 미사전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사랑의 방 신축공사에 수고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 : 남서신-김광명 고행기 각100,000원 후동-김복수70,000 중서신-조영순 남서신-이누갈다 후역전 이종길 후상리-김종령 후동-강희순 원역전-배기승 쌍제리 전의식 각50,000 감사합니다.
 5. 금주전례 : 특전-하용운 김옥분 공식-이재우 서인자
 차주전례 : 특전-이명섭 김현순 공식-정남선 장귀선
 제물봉헌 : 금주-유삼식부부 차주-김광평부부
- ☐지난주봉헌금 : 438,660원 ☐교무금 : 225,000원
 ☐감사헌금 : 10,000원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성 민 호
 사무실 52-7634 사목회장 장 현 순
 수녀원 52-7634

1. 모임 : ①구역장회의-공식미사후 ②구역형제 회의-목요일 저녁8시
 2. 중고 예비자교리및 학생미사 :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림
 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 다음주일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드립니다.
 4. 예수승천 야외미사 : 다음광원에서 오전11시미사 *야외미사 불참자를 위해 저녁7시30분 미사있음
 5. 사제관 건축헌금 불헌자 : 장영식10만원, 황태순5만원 조정근 강금성 각3만원, 위장식 박순자 신춘이 각2만원, 김종덕1만5천원, 김영산 이규재 채동석 박철근 성용일 조달래 라금순 이규순 각1만원 소계360,000원 누계9,118,000원
 6. 금주전례 : 해설-유용환 독서①김낙천 ②천정순
 봉헌-정경순 박순희
 차주전례 : 해설-김종규 독서-김영훈 부부
 봉헌-김정자 박선례
- ☐지난주봉헌금 : 271,630원 ☐교무금 : 110,000원